

[98 JCC(예수공동체 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16)

예수님의 중보기도(1)

[본문 요한복음 17:1-2]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5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자신이 만든 그 문화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욕을 늘 하던 사람은 언제나 갈등 없이 욕을 하면서 살지만 욕을 하지 않던 사람은 어쩌다 한번 욕을 하면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문화를 예수님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

중보기도란 남을 위해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크게 나를 위한 기도와 남을 위한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만 기도해 깊게 들어가면 갈수록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잘 살지만 늘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도 이런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이란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서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크면 얼마나 아빠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늘 다른 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보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들’을 위한 기도였으며,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중보기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자로 섰으면 합니다.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청이가 제물이 되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였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주님 나로 하여금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맡은 일과 공동체의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해 하는 기도란 바로 제물이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지침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받는 제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할 때 바른 기도를 해야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이 나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서 기도하기를 좋아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종교화’입니다. 예수 문화가 아닌 종교문화는 아주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 열두 보석을 달고, 수를 달고, 자락을 넓히고, 방울을 다는 것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의 영적 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6절에는 어떤 기도가 나타납니까? ‘골방기도’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이든 언어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침묵하면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며 예배입니다.

통성기도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될 수 있습니다. 본당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문처럼 중얼중얼 거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잘못하면 이렇게 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식사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양’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도 양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질’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저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까지 이르는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이것들을 알아야 뚫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 들어주리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고 한 말씀이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면 생기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차원에서 아무리 기도해 봐야 목만 아픕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를 올라서면 모든 것이 한층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말씀 안에서 한 단계에 올라오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나는 사람의 종류가 다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언어가 아니고 삶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며 생각은 삶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거나 잠을 자거나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의 연장입니다. 이미 기도가 생활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몸에 훈련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기도의 가장 밑바닥, 그 중심부에는 ‘진정으로 내가 용서하는 데까지 가느냐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바닥에 깔려있는 생각들입니다.

사랑의 열쇠도 용서입니다. 용서한다는 것도 말은 쉽지만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이의 실수가 나의 분노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연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화를 내는 것이지만 오히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오죽하면 저렇게 되었을까 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깊은 용서의 감정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에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 바라보아

오늘은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17장의 서론에 해당하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을 읽어주시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기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전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하고 중언부언하고 외식하는 기도가 되기 쉬운 까닭은 말씀 안에 깊이 젖어드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푹 젖었을 때 기도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됩니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를 오래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의 내용이 없는 법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이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QT와 묵상을 하십시오. 자꾸 말씀에 꼭 빠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을 때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얻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기도란 말씀이 있어야 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두 무릎 사이로 깊이 숙입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숙였던 고개가 다시 하늘을 향해 올려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땅에만 있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기도와 ‘때’

기도와 말씀, 기도와 방향의 문제에 이어 이제 ‘기도와 때’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연극에서도 모두 대사와 연기가 때를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때를 잘못 알면 엉망이 되고 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잘 맞추어 말하는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를 잘 가리는 사람을 일컬어 지혜롭다고 합니다. 할말 안 할말, 나설 때와 안 나설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때’라고 하신 것은 곧 ‘죽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마치고 죽을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 안 죽으면 비참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한 기도는 죽음을 내가 피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야 할 때 안하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기 전, 바로 마지막 순간인데, 바로 이때 도망가지 않고, 변명하지 말고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피치를 올릴 때와 같은 심정으로 말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절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곧 그것이 죽음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였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 곧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저 밥 잘 먹고 직장 잘 다니고 애기 잘 낳고 살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직장이나 결혼 등은 그 자체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수단과 목적은 구별해야 합니다.

종교의 타락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할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고 생각함으로써 수단을 목적화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때를 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분명하셨던 예수님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목적이 분명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왜 돈을 벌며, 왜 공부하며, 왜 자녀를 낳았으며, 왜 교회를 섬기느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저 재미를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기에, 목적이 분명하기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삶의 목표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자와 화목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 출처 : 은누리신문**